



75
YEARS

Celebrating
our commitment
to children



2011

연간 발전 보고서

PLAN KOREA

Annual Report



e-a-d-
e-f-g-h
i-j-k
l-m-n
o

04	플랜 소개	10	글로벌 캠페인
05	인사말	12	2011년 플랜의 사업
06	Highlight of 2011	18	플랜코리아 활동
08	플랜의 사업방식	20	플랜 & People
09	플랜의 새로운 계획	22	재정 보고

| Contents |



PLAN

플랜은 75년의 오랜 개발원조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국제아동후원단체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21개의 플랜 후원국은 국적, 정치, 종교를 초월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의 의료·보건, 교육, 양성 평등, 생계지원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후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플랜은 50개국에서 5,650만 여명의 어린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3년부터 1979년까지 ‘양친회’ 라는 이름으로 플랜은 전세계 후원국의 도움을 통해 한국의 65만 여명의 어린이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을 계기로 과거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돌아온 플랜코리아는 오래 전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VISION

플랜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Plan's vision is of a world in which all children realise their full potential in societies that respect people's rights and dignity.

MISSION

플랜은 범문화적으로 전세계 사람들을 융합하고 그들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Plan strives to achieve lasting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of deprived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a process that unites people across cultures and adds meaning and value to their lives.



플랜코리아 후원자 여러분들께,

춡고 긴 겨울이었지만 또다시 봄이 찾아 왔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자연의 섭리대로 때맞춰 찾아오는 봄을 막을 순 없겠지요. 사건사고나 자연재해도 많았던 2011년이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손길과 도움이 넘친 한 해였으며, 추위를 뚫고 나오는 꽃처럼 온정이 아름답게 피어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온정의 결과에 대한 연간 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지면을 빌어 한해 동안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후원자님들의 후원과 정성에 감사 드립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가 전세계로 퍼져가고 있으며, 이웃 일본은 작년 3월 발생한 대지진으로부터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 낸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과는 물론이고, 어려울 때 더욱 단결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마음은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와 더불어 이를 돕는 지원의 손길 또한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빈곤국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부분 예산을 늘리고 있고 기업도 이에 동참하고 있으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지원은 우리 각 개인이 베푸는 작은 후원이 모여서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에게 기쁨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후원과 정성이 이번에 발간하는 연간 발전 보고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후원자님들의 정성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플랜코리아 회장 노영찬

플랜코리아 대표이사 이상주



Highlight of 2011

1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 5기 발족

“나눔으로 청춘을 플랜하자!” 지구촌 이슈와 나눔활동을 펼치는 플랜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 5기의 활동이 2011년 2월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 곳곳에서 펼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후원 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플랜의 후원국에서 긴급구호를 위한 모금이 진행되었고, 피해지역의 수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와 재건활동이 펼쳐졌습니다.

3 스타 결연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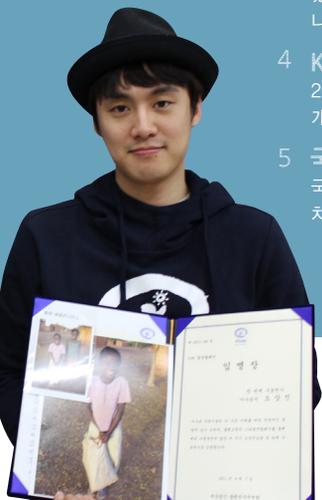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전세계 어린이들과 릴레이 결연을 맺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스타 결연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상진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티아라, 개그맨 윤형빈, 정경미 커피, 배우 수애와 손현주, 프로골퍼 최나연 선수로 계속해서 스타들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KBS 나눔더하기 대축제

2011년 4월, 여의도에서 KBS 나눔더하기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플랜코리아 후원자들의 참여로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을 위한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활동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5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연장 서명운동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통해 해외원조사업을 지원하는 12개 단체가 2011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빈곤퇴치기여금 시효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지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3



6 “플랜, 후원자를 만나다”

2011년 5월, 플랜코리아 후원자 모임 “THE좋은모임”을 통해 후원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후원 아동에게 보내는 포스트카드 만들기, 온라인 기사단의 후원자 인터뷰, 퀴즈와 다양한 게임 등 후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 캄보디아 김점선 미술학교 완공

홍보대사 김중만 사진작가의 전시회 수익금 기부를 통해 캄보디아 씨엠립에 건립 지원된 김점선 미술학교가 2011년 6월 문을 열었습니다. 600명의 학생들의 미술 교육을 지원하게 될 학교의 건립 기념 완공식에서 김중만 홍보대사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8 스타들의 해외 봉사활동 방문

배우 수애와 손현주, 조안이 플랜의 아시아 사업국가를 방문해 해외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수애는 방글라데시에서 어린나이에 결혼과 출산, 성폭력 등의 고통을 경험한 여자아이들을 만났고, 손현주와 조안은 필리핀과 태국에서 기회조차 얻지 못해 꿈을 꾸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만나고 돌아와 나눔의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 플랜코리아 후원자 지역 방문 - THE좋은여행

2011년 2월과 8월, 플랜코리아는 후원자들과 함께 플랜의 사업지역을 방문하는 THE좋은여행으로 네팔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플랜의 지역개발사업을 직접 견학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린이들과 만나 문화교류와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아동을 직접 만나는 등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 세계 빈곤퇴치의 날, 거리 캠페인 진행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돕고 빈곤퇴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오상진 아나운서가 함께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의 설명과 행사장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플랜의 사업방식

플랜은 어린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플랜의 모든 개발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중심 지역개발, CCCD (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를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중심 지역개발의 핵심은 어린이들에게 지역개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어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어린이들이 지역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플랜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시민 단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7세 울리아나는 에콰도르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에콰도르 안데스 고지대에 있는 고립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19세 때부터 울리아나는 낙후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플랜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존중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교육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고된 집안일을 해야만 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매를 맞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만이 아닌 여자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도 지역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매달 회의를 통해 이슈를 논의하고 아동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그룹을 만들고 이들이 더욱 활발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고 부모님들과 만나 이러한 그룹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플랜과 함께 지난 8년 간 이뤄 낸 성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권리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어린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플랜의 새로운 계획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 제공

전세계 빈곤퇴치를 향한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플랜은 모든 어린이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개선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과 지역사회에 더욱 효율적인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차별과 빈곤의 중심에 서 있는 개발도상국 여자 아이들에 보다 집중된 플랜의 계획은 여타의 비정부 단체들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플랜의 주된 캠페인이 될 *Because I am a Girl* 은 여자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을 통한 발달과 자립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10쪽 참고). 플랜은 또한 장애아동, 소수민족, 거리의 아이들, 노동에 희생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질과 결과에 대한 척도를 계속해서 개선시켜 갈 것이며, 도움을 받을 지역사회와 어린이들도 늘어 갈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은 전세계적인 이슈 - 도시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유소년층 인구 급증, 그리고 빈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같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할 것입니다.

지난 75년간 플랜은 어린이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어린이들과 지역사회의 삶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각종 기관들이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플랜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부모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정부기관의 정책 변경 및 수립을 위해 힘쓸 것이며, 또한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및 다른 단체들과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보다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캠페인



여아 권리 신장 캠페인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양성 평등과 여아들의 권리 확보가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적 요소라는 플랜의 강한 믿음을 기초로 한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 지역의 여자아이들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은 단지 그들이 여자이고, 또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플랜은 고통 받는 여자아이와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글로벌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통해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전 세계 5억여 명 여아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플랜의 모든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플랜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13명의 여학생들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석해 양성평등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플랜의 모든 국가들이 연합하여 유엔의 세계 여자아이의 날 공식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2011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0월 11일을 세계 여자아이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Girl Child)이 공표되었습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플랜 인도의 *Let Girls Be Born* - 태아 성감별 및 낙태 근절 캠페인으로, 플랜 기니비사우에서는 아동과 여성 인신매매 금지법과 여성 할례 금지법 통과를 위해 활동으로, 또한 플랜 우간다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정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각 국가별 다양한 캠페인으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여아들을 담보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노예제도의 악습을 철폐하고자 시작된 카말라리(Kamalari) 프로젝트가 한 지역에서만 1천7백 명의 여아들을 구출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저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플랜의 프로그램 덕분에 저와 우리 가족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 태국, 마날(14세)



출생등록 캠페인

개발도상국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신고서, 신분증과 같은 증명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플랜의 아동출생등록 캠페인이 2005년 시작된 이래로 4천만 명 이상이 출생신고를 통해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간소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하기 위한 등록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출생등록신고는 플랜의 다양한 사업 중 전문분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여러 후원기업들과 **Count Every Child** 캠페인의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린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출생등록신고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플랜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과 함께 캠페인 명과 로고를 새롭게 소개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은 학교폭력과 부적절한 처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플랜의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Learn Without Fear**는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 가지 폭력 - 성폭력과 집단 따돌림, 체벌을 근절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Learn

without fear.

지난 2008년부터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플랜의 캠페인의 결과로 제정된 학교폭력금지법을 통해 수많은 어린이들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고, 3만여 개의 학교에 관련 정책과 교육과정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깨우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을 일으켰습니다.

플랜에 의해 시행된 여러 프로그램의 결과를 통해 입증된 성과와 다양한 사례 보고서를 통해, UN 아동폭력 담당 특별대표 마사 산토스 페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플랜과 뜻을 같이 하며, 플랜을 학교폭력 예방의 선두주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보호

플랜의 목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대와 폭력, 노동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식



잠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

아동매매 근절을 위한 지역 당국 훈련

매년 남아프리카에서 인접 국가로 인신매매가 되는 아동수는 7만3천 명에 달합니다. 남아의 경우 농장이나 광산, 마약 밀매업에 팔려 가고, 여아는 가정부나 매춘, 아동 포르노사업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2010년 플랜 잠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그리고 짐바브웨는 아동매매 근절과 아동 보호를 위해 *Protecting Child on the Move* 라는 3개년 캠페인을 시작해 국경수비대와 경찰, 시민들을 교육하며 국가간의 공조와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역량 강화

에콰도르 산타 엘레나 지방에서는 70%의 어린이가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 이상 가정과 학교에서 감금과 신체적인 폭력으로 모욕감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플랜은 가정과 학교에서 자행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 수비대를 확대해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참여

플랜의 목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할
권리 인식



방글라데시 | 거리의 아이들, 제네바 UN 인권위원회에서 연설

인신매매와 강간, 아동노동과 같은 각종 위험이 노출된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부류입니다. 플랜은 방글라데시 다카의 거리의 아이들에게 사진과 영상 촬영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거리에서의 삶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 *Through Our Own Eyes* 를 진행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전세계 천만 명의 어린이들 중 하나인 타니아는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위원회(UHRC)에 초대되어 경험담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거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졌어야 해요.” 타니아(14세)

서아프리카 | 미디어클럽을 통한 양성평등 캠페인

플랜은 2010년 가나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토고에서 성 불평등 극복을 위한 *Girls Making Media*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성차별, 폭력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였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야의 오랜 경험이 있는 플랜을 통해 청취자수 2백만 명에 달하는 가나의 라디오 방송에 *Child Rights Show* 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 나오는 아동의 참여권은 존중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플랜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교육

플랜은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의 권리를 존중하고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교사양성과 문화 및 성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아동친화적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가 교육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플랜의 목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동등한 교육의 권리 보장

르완다 | 여자아이들을 위한 교육기회 증가

르완다는 학교 취학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아들의 높은 학업 중단율로 인해 17%의 학생만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취약 아동, 특히 여아와 고아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및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이끌었고, 이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교 출석을 증가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학업 중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구분해 설치함으로써 여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 놀이를 통한 아동 교육 프로젝트

유아기는 아동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에서는 4세 미만 아동의 98%가 유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4~6세 아동의 절반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플랜은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플랜은 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시범사업으로서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HSBC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가장 취약한 학교 중 8곳의 6~16세 사이의 5천8백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과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놀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9개 이상의 놀이교육센터의 건립이 계획되었으며 1백여 명의 교육 교사들이 양성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학비와 언어 및 문화적 장벽,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플랜은 지속적인 정부기관과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힘써 갈 것입니다.



보건 · 의료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이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



플랜은 신생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보육 전문가와 자원 의료봉사자 18만 여명을 양성하여 18,416곳의 지역사회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볼리비아 | 보건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개발

볼리비아는 산모 및 유아 사망률과 영양실조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플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개 지역사회에 아동 질병의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실조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를 선정해 채소 재배 구획을 만들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영양식 요리법을 강의하는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높이는 등 아동 보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플랜은 통합된 지역사회 보건 프로젝트를 더 많은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부와 지역 NGO, 정부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 진료소 건립을 통한 산모와 유아 보건 증진

플랜은 마을 곳곳에 지속적인 진료소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출산 전후 서비스, 말라리아 치료, 영양 지원, 예방접종 등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과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산모와 유아 보건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USAID의 재정지원과 NGO 컨소시엄을 통해 보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플랜은 1백 명의 지역사회 보건교사를 양성해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5세 미만 아동 20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 유아기 성장 발달 지원

플랜은 모잠비크의 3~6세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관리 등의 보건·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영양식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아동친화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모잠비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128개 지역에 보육원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극빈곤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과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거주자들에게 성장과 기회보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소액금융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런 방법은 경제 위기에서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 젊은 계층 대상의 기술교육 프로젝트

베트남의 실직자 중 45%는 생계유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젊은 계층입니다. 플랜의 청년 고용 프로젝트 REACH는 베트남의 7개 도시에서 18~25세의 6,021명의 청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고, 늘어난 일자리에 플랜을 통해 교육받은 기술자들을 취업 시킴으로써 IT, 고객센터 등의 분야에 약 천 여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REACH는 다른 기관의 협력 및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실시하고, 이를 지방도시와 이웃 국가에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교육과 훈련을 하는 REACH 프로젝트는 도전의식이 있는 젊은이들과 잠재적인 고용주들을 연결시켜 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 농업기술교육과 금융지원으로 생산량 증가

플랜은 짐바브웨의 정부기관인 AGRITEX와 함께 식량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정으로 구성된 5천여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 교육과 종자와 가축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받은 아비나 치디아니(48세)는 습득한 기술로 전년도에 비해 300% 증가한 양인 수수 77포대를 생산하였고, 지속적인 수입과 식량을 얻을 수 있는 70마리의 닭을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플랜의 담당직원과 교육자들이 수시로 집을 방문하며 응급 가능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쓸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범을 보이며 가르쳐 주셔서 따라하기도 쉬웠습니다.”

시에라리온 | 저축옹자프로그램을 통한 기회 창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9세의 살라마투는 학업을 중단하고 이모를 도와 시장에서 쌀을 팔았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가정생계를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버는 일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플랜은 학업을 중단한 15~25세의 4천8백 명(70%가 여성)을 저축옹자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매주 0.18파운드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도왔습니다. 살라마투는 자신의 조그마한 가게를 열기 위해 대출을 한번 받고,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한 학비로 또 한번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플랜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시장에서 쌀만 파는 인성이 되었을 거예요. 제 힘으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척 행복합니다.”

향후 10년, 10억 3천만 명의 젊은 계층의 노동인구가 생겨나게 되지만 오로지 3천 만 개의 새로운 직업만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생산적인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



식수 및 위생

플랜의 목표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식수와 기본 위생시설의
확충을 통해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개선된 삶에
대한 권리를 인식



플랜은 지역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위생의식의 개선을 위해 여아와 여성들에게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플랜은 정부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 위생시설을 통한 보건향상

열악한 위생환경은 캄보디아 아동사망률의 주요 원인입니다. 도심 외 거주인구 중 18%만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랜의 프로젝트를 통해 백만 여명에게 위생 교육과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플랜 캄보디아에서는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 절반 이하인 18개의 지역사회를 선정해 공동기금을 지원하여, 2015년까지 도심 외 지역의 위생시설 이용률을 18%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 삶을 변화시키는 위생환경 개선

산페드로 카르차 지역구에서는 식수원의 98%가 오염되어, 이 지역의 지하수를 통한 식수공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플랜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3,179가구를 대상으로 빗물저장고를 이용한 식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가정과 학교 내 임시화장실 설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약 14,840명의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향후 5년간 369개의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니비사우 |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 공동체 지원

플랜은 기니비사우 도심 외 지역 인구 중 5%만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고,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아동사망률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바파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상배변과 같은 비위생적인 습관의 계몽을 위한 캠페인과 지하수 개발과 화장실 설치 등을 지원하며 현지에서 이용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 정부는 플랜이 실시한 프로젝트를 롤 모델 삼아 활용할 것을 다른 단체들에게 권하였습니다.

“우리에게만 자연스러운 노상배변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플랜이 설치해 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매년 5세 미만 아동 120만 여명이 설사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지역사회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노상배변의 지양과 손 씻기 습관화 등의 인식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퇴치

플랜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인식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HIV/AIDS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잘못된 인식과 차별로 인해 소외되는 에이즈 고아,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 장기적인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플랜은 2009년 부르키나파소의 12개 중학교에 청소년 클럽을 만들고 성 관련 질병과 임신 예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플랜코리아의 지원을 통해 인식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한 지역의 현황조사 및 인프라 구축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서, 2011년 플랜은 9백 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와 관련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치료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그 외 학생들과 함께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성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권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플랜의 목표

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인식 개선 및 예방·치료 교육



재난위기대응

플랜은 이제 어린이 중심의 재난위기대응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1년 플랜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어린이 보호와 지원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플랜의 긴급구호 활동의 중심에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일본 | 강진과 쓰나미 피해 지원과 복구 활동

일본은 후원을 받는 수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해 수많은 어린이들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플랜은 일본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플랜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본부와 각 지역 사무소에서 파견되어 온 위기대응 관련 전문가들과 사회심리 전문가들을 통해 구호활동에 집중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끼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치료 지원을 위해 플랜은 2천5백 명의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심리치료 워크숍과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치료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치료가 지원되었습니다.

카메룬 | 콜레라 예방 프로젝트

어린이들에게 콜레라 예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플랜 카메룬의 중요한 활동을 차지합니다. 2011년 6월까지 카메룬에서는 9천 건이 넘는 콜레라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랜은 보건부와 협력으로 진행한 콜레라 예방 프로젝트를 통해 15,492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총 6만2천여 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미디어 그룹인 'Kids Waves'의 활동은 아동잡지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생의식 개선과 콜레라 예방법을 알리는데 더욱 도움을 주었습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위기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인식



2011년

플랜코리아 활동

후원기업 협약

후원기업 플랜 사업지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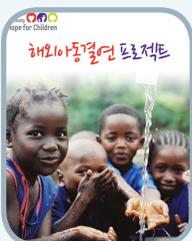
EXR코리아, 200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레시브 스쿨 건립 지원 사업으로, 캄보디아 캄퐁참과 베트남 따풍 지역에 3·4호 건립 지원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 그로보강 지역 꾸논 텀벵 마을에 코이카 공적개발원조를 연계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초등학교 건립 지원



삼성전자 탕정사업장, 1만 여명의 임직원 기부와 회사의 일대일 매칭펀드를 통한 기금으로 북수단 에두웨임 지역의 여자초등학교 건립 지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디지털 시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1004명 어린이들과 임직원의 일대일 아동결연후원 지원. 총 5,020명의 임직원이 후원 동참



현대자동차 플랜코리아를 통해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6기로 선발된 대학생 봉사단 60 여명과 함께 이집트 방문. 2주간 보육원과 장애아동시설 등의 개보수 및 문화교류활동 실시



삼성물산 해외봉사단, 인도 델리의 도시빈민가 방문, 봉사활동 진행 - 벽화제작, 장애아동 학습교구 제작 및 태권도, 부채춤 공연 등의 문화교류 활동 진행



다음 커뮤니케이션, 스리랑카 모나라갈라 지역에 건립한 다섯 번째 지구촌희망학교의 완공과 함께 임직원 봉사활동, “설레는 휴가” 방문. 다양한 문화교류활동 및 후원아동 가정방문 진행



서영엔지니어링, 중학교의 부족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캄보디아 씨엠립의 빛 마을에 건립한 서영드림스쿨 개교식 참석. 3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교실과 도서관 및 식수·위생 시설의 건립 축하



봉추푸드시스템,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건립 지원한 네팔 바라지역의 도하리 마을과 앙켄군즈 마을의 학교 완공식 참석



**롯데백화점,
아프리카 아동출생등록 지원**
고객과 함께 하는 쉬어나눔캠페인 활동으로, 여름휴가 후 남은 동전을 기증받아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출생등록신고 캠페인 지원



**HSBC 기업자금관리부 임직원,
캄보디아 우물 사업지역 방문**
부서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캄보디아 씨앰림에 우물 건립을 지원, 17개 가정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 방문한 마을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돼지 선물 및 문화교류활동 진행



**세네갈 빈곤퇴치지원사업
보건소 준공**
세네갈 루가지역에 한국 정부의 지원과 플랜인터내셔널, 사칼 지역의 지원으로 건립되어 산부인과와 일반진료 시설을 갖춘 보건소 준공식 진행



**신한생명,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티셔츠 기부**
신한생명 직원들이 한시적으로 착용했던 티셔츠 1,045벌을 재포장해 플랜이 후원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전달식 진행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아프리카 지원 기금 전달**
2011년 9월부터 3개월간 판매된 호텔 패키지 상품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 아프리카 케냐의 유치원 건립 사업에 지원



**성남고등학교,
'사랑의 우물' 봉사활동**
2007년부터 캄보디아 씨앰림에 우물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는 성남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방학기간 사업지역을 방문해 현지 지역주민들 및 학생들과 문화교류 활동 진행



아코르 호텔 그룹, 후원금 전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을 비롯한 국내 아코르-앰배서더 계열의 6개 호텔이 라오스의 유치원 교육지원 사업과 베트남 초등학교의 학습교구를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식 진행



**EXR-플랜클럽,
노화북 초등학교에 도서관 선물**
2010년부터 낙도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도서관 설립 지원 활동 해오고 있는 EXR-플랜클럽이 완도군 노화북 초등학교를 방문해 도서관 설립 및 도서 기증



**코엑스 아쿠아리움,
아프리카 후원금 전달**
플랜코리아 홍보대사인 매너티가 있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2011년 한해 동안 관람객들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 전달, 아프리카 아동 추가 후원 진행



**건국고등학교,
지구촌 어린이 후원**
부산 건국고등학교 학생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 프로젝트"의 활동으로 전교생이 모금한 후원금으로 캄보디아 우물 건립과 네팔과 수단에 염소와 양을 보내는 플랜코리아 "The 좋은선물" 지원

플랜 & People

2011년, 어린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 많은 분들의 소중한 땀과 시간, 재능이 있었기에 플랜을 통해 도움을 받는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스타 결연릴레이에 동참해 준 스타들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과 전세계 어린이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스타 결연릴레이는 오상진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가수 티아라, 개그맨 윤형빈, 정경미 커플, 배우 이소연, 그리고 프로골퍼 최나연 선수로 계속해서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네팔, 라오스 등 지구촌 어린이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시작한 많은 스타들을 통해 더 많은 나눔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 홍보대사 김종만 사진작가

고(故) 김점선 화백의 2주기를 맞아 캄보디아에 건립한 김점선 미술학교 완공식에 참석한 김종만 사진작가와 난생 처음 미술수업을 받아보는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종만 작가는 전시회의 수익금을 기부해 씨엠립의 양코르 춤 종합학교 내에 미술학교를 세우고,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미술교육과 물품들을 지원하였습니다.

3 MBC Love for everyone “The Plan,” 배우 수애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주 조금의 마음만 있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요.”

MBC everyone과 함께 한 지구촌 나눔 다큐멘터리 “The Plan”을 통해 배우 수애씨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꿈과 열정을 포기하고 어린나이에 강요된 결혼과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여자아이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 여성직업교육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4 MBC Love for everyone “The Plan,” 배우 손현주

“나눔이란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며 같이 사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다가와 보세요. 한 발짝 다가간 순간 더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단 한번의 기회가 절실한 아이들에게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어 준 손현주씨를 통해 필리핀에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는 하늘을 날 것 같은 부푼 꿈이 다시 피어 올랐습니다. “The Plan”의 두번째 이야기에 함께 한 배우 손현주씨를 통해 장애아동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5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 5기

전세계 빈곤문제와 봉사활동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2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플랜클럽 5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의 활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플랜의 캠페인과 행사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해 주체적인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행복을 전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플랜코리아와 함께 활동해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과 자원봉사자, 후원기업, 홍보대사 등 많은 분들이 2011년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워주신 플랜코리아의 얼굴들입니다.

플랜 인터내셔널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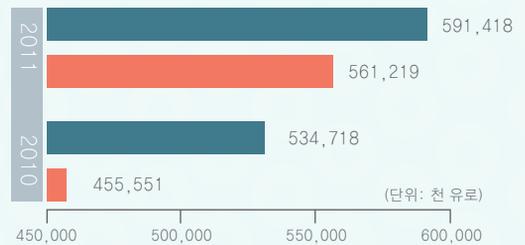
플랜 인터내셔널 월드와이드 연결 수입 및 지출 보고

		2011	2010
수입	결연후원금	353,368	345,854
	정부 및 기업 프로젝트 후원금	139,657	102,468
	현물 후원금	14,615	22,614
	기타 후원금	77,366	58,125
	투자 수입	2,807	2,060
	판매 수입	3,605	3,597
	수입 계	591,418	534,718
지출	프로그램 지출비	417,665	366,800
	홍보비	73,707	61,787
	운영비/기타	69,847	26,964
	지출 계	561,219	455,551
차기 이월	30,199	79,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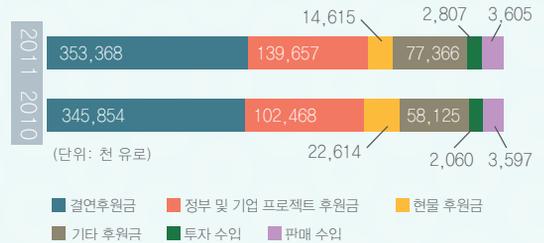
(2011. 6. 30 기준)

단위: 천 유로

플랜 인터내셔널 수입 및 지출



항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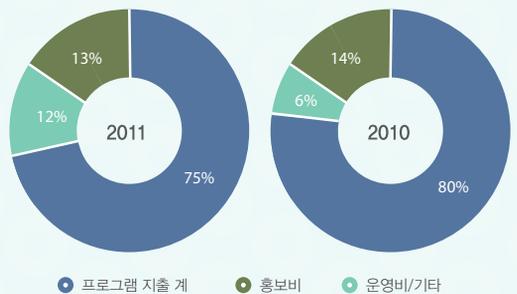
플랜인터내셔널 월드와이드 지출 명세

		2011	2010
프로그램 지출비	지역개발사업 지원	247,419	213,801
	아동권리교육/보호	72,762	60,351
	스폰서십 프로그램 지원	51,696	47,885
	재난위기관리 및 긴급구호	45,788	44,763
	프로그램 지출 계	417,665	366,800
홍보비	73,707	61,787	
운영비/기타	69,847	26,964	
수입 계	561,219	455,551	

(2011. 6. 30 기준)

단위: 천 유로

플랜 인터내셔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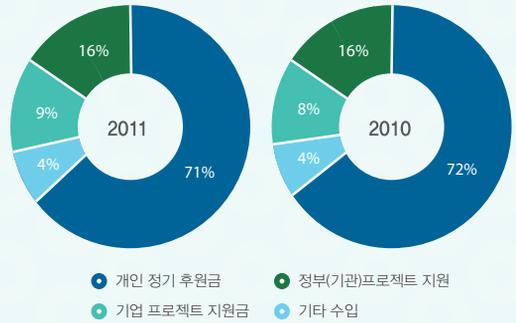


플랜코리아 재정정보고

2011년 회계연도 수입결산서

항 목	2011	2010
개인 정기 후원금	6,379,486	5,023,201
정부(기관) 프로젝트 지원금	1,451,600	1,116,025
기업 프로젝트 지원금	768,892	570,586
기타 수입	387,314	290,763
합 계	8,987,292	7,000,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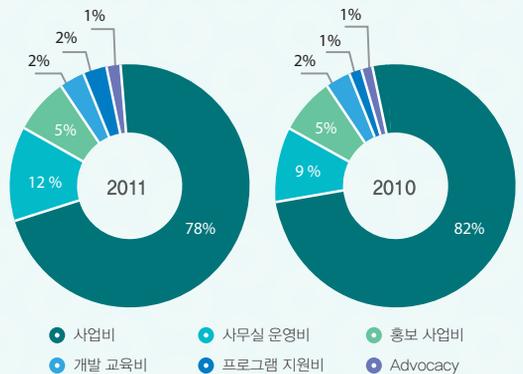
단위: 천 원



2011년 회계연도 지출결산서

항 목	2011	2010	
이연비	사무실 운영비	1,112,306	648,931
	홍보 사업비	480,727	372,940
	소 계	1,593,033	1,021,871
해외 사업비	개발 교육비	143,247	115,911
	프로그램 지원비	139,234	113,224
	Advocacy	68,686	53,751
	사업비	7,043,092	5,695,818
	소 계	7,394,256	5,978,704
합 계	8,987,292	7,000,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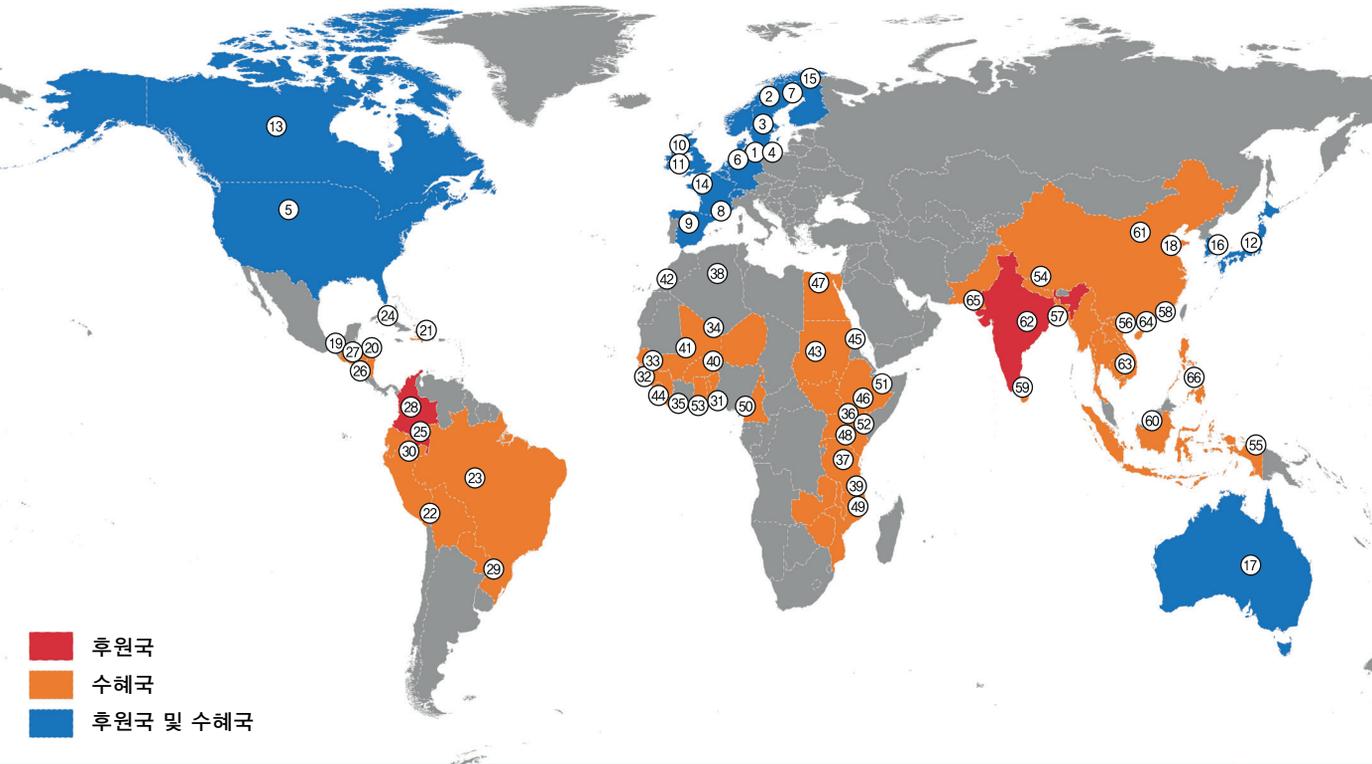
단위: 천 원





플랜코리아 PLAN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4 청우빌딩 2층 (135-870)
 2nd Floor, Cheongwoo BD 58-4, Samsung-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 02 790 5436 **Fax.** 02 790 5416. **Homepage.** www.plankorea.or.kr
 www.facebook.com/plan.kr @plankorea



- 후원국
- 수혜국
- 후원국 및 수혜국

플랜 해외사업지역

후원국		수혜국	
1 네덜란드	중남아메리카	35 니제르	54 토고
2 노르웨이	19 과테말라	36 라이베리아	아시아
3 덴마크	20 니카라과	37 르완다	
4 독일	21 도미니카공화국	38 말라위	
5 미국	22 볼리비아	39 말리	
6 벨기에	23 브라질	40 모잠비크	
7 스웨덴	24 아이티	41 베닌	
8 스위스	25 에콰도르	42 부르키나파소	
9 스페인	26 엘살바도르	43 세네갈	
10 아일랜드	27 온두라스	44 수단	
11 영국	28 * 콜롬비아	45 시에라리온	
12 일본	29 파라과이	46 에티오피아	
13 캐나다	30 페루	47 우간다	
14 프랑스	아프리카	48 이집트	
15 필란드	31 가나	49 잠비아	
16 한국	32 기니	50 짐바브웨	
17 호주	33 기니비사우	51 카메룬	
18 홍콩	34 남수단	52 케냐	
		53 탄자니아	

* 후원국 및 수혜국